

장흥 마을교육공동체, 주민 참여 한마당

교육공동체 운영 위해 관계자 참여 토론회 개최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지역사회의 역할 논의

장흥장평중학교가 지난 12월 19일 장평면 행복지원센터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기관, 단체, 주민, 학부모, 교사와 중학생, 초등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마을교육공동체 어떻게 시작할까?' 토론회를 가졌다.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참여해 아이들의 공동체적 삶의 체험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이 해야 할 일을 함께 시작해 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고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놀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원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대체로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대 시설로는 운

동할 수 있는 공간,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공간, 정보도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미래에 필요한 삶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정과 마을과 지역기관이 함께 모든 아이를 내 아이, 우리의 미래라 생각하며 친구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 책임질 때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뿐 아니라 마을의 자연과 사람, 삶 속에서 살아 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흥장평중학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들은 씬 없이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마을 화관, 단체를 방문하면서 배움이 삶이 되고 삶이 배움이 되는 활동을 해왔다.



올해 1년 동안 장흥장평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마을에서 배우다 프로젝트 수업'은 한 교과에서만으로도 10주제 넘게 진행됐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마을 기행과 생태 탐방 및 홍보물 제작, 유적 답사 및 독립운동가 후손 취재 활동 후 신문 제작, 마을의 달인을 찾아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하는 김장과 나눔 활동, 아나바다 장터를 활용한 성금 기부, 마을교육공동체 주민 참여 한마당' 등이 그것이다.

도경진 교사는 "삶과 배움이 연계된 학생의 삶에 기반한 성장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 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말처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이나 청소년 센터가 없는 장평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장흥=위지훈 기자

함평교육청, 公印 훈민정음체 변경

구성원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효과

함평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공인 전체 글자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해 사용한다.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컨설팅 후 공인대상 정비 및 인영변경 공고 등을 총괄해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과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공인의 글자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는 함평교육청의 2019년 목표인 '현장에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한 행정 구현의 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다. 내부적으로는 팀·과 구성원들 간 분장 사무, 직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바탕으로 협업을 이끌었고, 외부적으로는 탁상공문식 행정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창의적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하였다.

정청을례를 통한 현장 요구는 즉각 반영을 원칙으로 교육자료 우체국 택배 배송 서비스 '함평 나르미'를 실시하여 학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고, 현장을 존중하는 밀착 행정지원으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점검·환류형 컨

설팅을 확대하였다. 실제 효과를 내는 행정 컨설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안업무·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문서고 정비는 학습연구동 아리를 통해 이웃 학교 동료와 함께하는 문서고 품앗이로 학교 참여와 능률을 극대화했다.

또한, 월별 각 과 업무를 공유하던 월례회의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변경해 2019 함평교육계획 중점과제 중심 연구를 실행하여 상호 소통이 활발한 조직 문화를 조성 하였으며, 중간관리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팀장·장학사 2주 1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경직된 회의가 아닌 업무 공유형 토론회 방식을 도입하였다.

박영숙 교육장은 "혁신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자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이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견 교환이 활발할 때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함평교육은 사람 중심 교육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교육 혁신 위한 설명회 개최



간을 가졌다. 특히, 무안몽탄중 문태홍 교장의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천사례 나눔 시간은 학교혁신 전진화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고민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교육청은 지난 30일 무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 초, 중 교장(감), 담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꿈 넘어 꿈을 가꾸는 즐거운 무안교육 실현'을 위한 '무안교육 2020'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0학년도 혁신무안교육의 첫걸음으로, 무안교육의 5대 교육지표와 역점과제, 특색과제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추진 사업을 안내하고,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 나눔 시

정재철 무안교육장은 "무안교육2020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회를 통해 올해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현장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신장, 학부모교자울 참여 확대, 무안혁신교육지구 강화 등 주요 사업과 역점 및 특색과제 운영에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공고-학교체육 유공 교육부장관賞

목포공업고등학교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공을 인정받아 학교체육 유공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목포공고는 축구부, 볼링부, 세팍타크로 분야의 선수를 육성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공무원 20명을 합격시켜 전국 특성화고 중 최다 합격을 자랑하고 있는 목포공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상을 받아 자랑거리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제1회 전남 창업 아이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 전남직업교육 사진 공모전'에서 2위 입상을 하였으며, '2019. 학생인권보장홍보공모전'에서 UCC와 웹툰 부문 최우수상, 6행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목포=박정수 기자

강진교육지원청, 청렴활동 우수상 표창

강진교육지원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렴활동 우수기관 시상금과 매달 적합한 기부금을 관내 학교 소년소녀학생장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가족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청렴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포상을 하고 있는데, 강진교육지원청은 2019년도 청렴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함께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양백운초, 소방서에 방문해 감사 전달



의 기쁨과 광양시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이루어졌다.

광양백운초 5학년 학생들이 지난 27일 광양소방서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2019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에서 불조심 어린이상을 수상한 학생들로 학생들이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운 안전지식을 바탕으로 가까이 위치한 광양소방서에서 직접 익힌 안전습관 덕분이었다. 이번 방문은 수상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감사 편지와 대회 상금으로 구입한 과일을 전달하였으며, 소방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소방시설과 각종 장비들에 대해 소개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김미숙 교장은 "연말이 되면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함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다. 소방서를 방문하여 감사인사를 전한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소방서를 직접 찾아 소방시설을 살펴본 경험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도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